

CAGLIERO 11

살레시오 선교 활성화를 위한 회보



사 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들과 선교를 도와주는 여러 친구들에게!

로사리오 성월이자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으로 부터 안부를 전합니다.

142차 선교사 파견식때 토리노에서 살레시오 가족 7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선교라는 커다란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입니다. 16년 전 켈커타의 데레사 수녀님이 한 젊은 수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수사님을 움직여 당신의 말씀을 모든 나라에 퍼지게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분 스스로 수사님의 성소를 완성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수사님의 첫 성소는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일입니다."

2011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제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요한 20,23) 2011년 10월에는 우리의 목주 기도를 남겨 살레시오 선교사들을 위해 바칩시다.

Václav Clement

선교 평의원,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를 충실하게 토착화하자.



"... 사랑하는 새로운 선교사 여러분, 복음화를 위한 사명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한 최고의 모델은 바오로가 필립비서(2,6-11)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바로 그 예수님 이십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초대합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겸손으로 이곳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영심이나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진정한 토착화**란 사람들의 문화의 핵심을 건드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견된 사람들로 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지위, 우리들의 경제적인 수단 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되게 시작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과 참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사랑한 것 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충실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면, 여러분의 선교생활을 성체성사에 일치 시키십시오. 이길이 여러분을 성화로 이끄는 길이고, 여러분의 삶이 전례가 되고 여러분의 전례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체성사는 여러분의 선교와 영성의 샘이 되고, 여러분의 선교는 성체성사의 연속이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돈보스코 사망 200주년을 준비하는 첫해 입니다. 이 첫해에 여러분이 파견될 여러 나라에 그분의 카리스마를 잘 토착화 시키기 위해 그분을 더욱 더 공부하라고 초대합니다.

파스칼 차베스 빌라누에바 신부

2011년 9월 25일 발도코에서 한, 142차 살레시오 선교사 파견 미사 강론 중에서 (강론 원본을 원하면 <http://tinyurl.com/5wp2rko>)을 보십시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나는 생각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기술자입니다. 1999년 말 나는 자원 봉사자로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나를 코스타 아이보리에 있는 돈보스코 사업체에 교사로 파견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나는 성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코르호고에 있는 살레시오 집에 도착했을 때 형제를 맞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목상, 일, 기쁨과 고통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돈 보스코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분은 오늘의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학적 우화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다양한 욕구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난한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성소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통해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001년 수련을 시작합니다. 2002-2003년의 코스타 아이보리의 내전은 나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총장님에게 2009년 서품을 받은 후에 차드로 보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는 살레시오 성소가 아주 적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면 외국으로 파견되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원의 숫자가 우리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있는 계획을 하고,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도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파견하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선교사를 위한 교육은 내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교학과 인류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교사 생활의 허상과 도전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문화의 충격, 새로운 환경, 어떤 때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환경에 대한 적응, 가족과의 이별 등입니다. 생명을 주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선교사 자신이나 수도회가 더 많은 식별을 해야 합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중심에 있는 커다란 나라입니다. 나는 기후와 함께 다른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레시오 회원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의 악순환, 젊은이들의 직업 문제, 이슬람 환경과 다종교 상황에서의 토착화 등입니다. 닥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선의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드의 선교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과 성사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회는 극심한 가난을 살고 있는 사헬이라는 마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카리스마를 토착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상황에 맞도록 예방교육을 적용하는 것과 잘 계획된 일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차드를 위해 열성적인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비에르 베르체레 신부.
프랑스 출신 차드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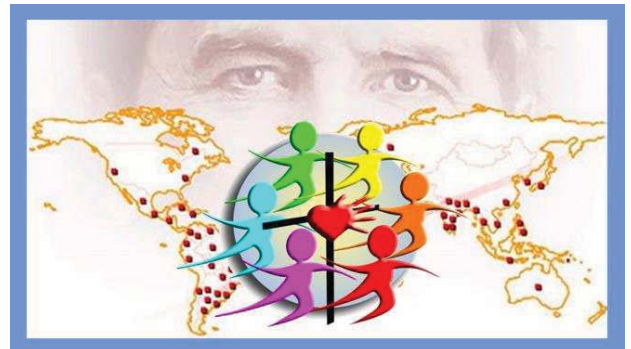


살레시오 선교 지향

모든 관구의 선교 활성화 담당자들을 위해

살레시오 회원들이 일하고 있는 90개의 모든 관구에서 선교 활성화 담당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공동체에, 젊은이들에게, 평신도 협력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활성화를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형제회원들에게 살아 있는 선교의 불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관구에서 선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2010년 인도의 실롱에서 출판된, 안토니 로이 신부님이 쓴 "1923-1967 사이의 살레시오 선교 전망"이라는 책에 선교사 그룹에게 미치는 선교 활성화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선교사"라는 잡지에서는 리날디 신부님으로부터 바티칸 2차 공의회까지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살레시오 집의 선교 그룹도 이런 카리스마적인 역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성화를 위한 자료들을 때에 맞춰 보내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원고를 cagliero11@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